

SK이노, 3년 연속 'DJSI 월드기업' 선정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

'더블 바텀라인' 추진 성과 인정

SK이노베이션은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DJSI) 평가에서 3년 연속 '월드 기업'으로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각 분야 상위 10% 기업들이 'DJSI 월드' 기업에 이름을 올린다

SK이노베이션은 '석유 및 가스' 분야 'DJSI 월드'뿐 아니라 'DJSI 아시아 태평양', 'DJSI 코리아'에도 3년 연속 편입됐다. DJSI 아시아태평양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600여개 기업 중 상위 20%, DJSI 코리아는 국내 200여개 기업 중 산업별 상위 30%를 포함하는 지수다.

SK이노베이션은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더블 바텀 라인' 전략이 이 같은 성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SK이노베이션은 더블 바텀 라인 전략으



SK이노베이션 울산공장.

/연합뉴스

로 친환경 전기차 배터리 산업을 육성하고, 폐배터리 재활용 방안 등을 연구하고 있다.

SK에너지는 일반 아스팔트보다 유해물질 배출량이 낮은 아스팔트를 판매하는 등 SK이노베이션 계열 자회사들도 지속가능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

김윤옥 지속경영본부장은 "DJSI 성과를 토대로 회사의 투자 매력도를 높여 기업 가치를 올리겠다"며 "환경·사회적 성과 창출 노력을 계속하고, 장기적으로 이에 기반한 비즈니스 모델 혁신을 하겠다"고 말했다.

/정연우 기자 yw964@metroseoul.co.kr

D의 공포



기지 수첩

김희주 (파이낸스&마켓부)

이번에는 'D(디플레이션)의 공포'다.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2%대 달성도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디플레이션 공포가 고개를 들고 있다.

디플레이션이란 경제 전반적으로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을 말한다. 우리는 주변국 일본의 상황을 1990년대 초부터 지켜왔기 때문에 그 공포가 더욱 크다. 금융시장 안팎에서는 일본 최악의 디플레이션이 우리나라에서도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본의 경우 내수가 부진해지며 1999년부터 소비자물가가 하락했다. 소비자는 물가가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해 소비를 미뤘고, 기업은 매출이 줄며 시설과 인력에 투자를 못 했다.

우리나라의 현재는 어떤가.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965년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8개월 연속 0%대를 기록하고 있다. 하반

기에도 저물가 흐름이 지속되며 연간 물가 상승률은 0.7% 내외로 예상된다.

경제성장세는 더욱 둔화되고 있다. 한국은행이 전망한 올해 경제성장률은 2.2%다. 국내 주요 연구기관으로는 처음으로 한국경제연구원은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1.9%로 기존보다 0.3%포인트 낮춰 전망치를 1%대로 내려 잡았다.

이론상으로 경제성장세가 둔화되는 상황에서 저물가가 계속되면 디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정부는 저물가는 일시적 현상이라며 디플레이션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최근의 저물가는 농·축·수산물과 석유류 등 공급측 요인의 기저효과 때문이며 하반기에는 이런 효과가 사라지면서 빠르게 반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이 같은 저물가 현상이 장기화될 경우 진짜 디플레이션에 빠질 수도 있다.

정부와 한은이 저물가 상황에 대한 위기감이 너무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디플레이션의 그림자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저성장, 저물가에 대한 장기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

/hj89@metroseoul.co.kr

에어부산 탑승객 대상 무료항공권 증정 이벤트

에어부산이 국제선 탑승객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왕복 항공권을 증정하는 '무료항공권 럭키드로'를 진행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15일 에어부산에 따르면 지난 5일부터 실시된 이번 이벤트는 에어부산 국제선 11개 노선, 204개 항공편에서 기내 손님들을 대상으로 오는 30일까지 진행된다. 좌석번호 추첨 또는 게임 등을 통해 국제선 왕복

항공권(2명, 각 1매)과 국내선 왕복 항공권(1명, 1매)을 제공한다.

특히 지난 7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김포→부산→국제선 항공편 이용 시 김포-부산 항공편 운임을 환불해주는 이벤트를 활용하면 수도권 지역민들도 행운의 무료항공권 당첨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에어부산 관계자는 "이벤트 기간 내에 부산에서 해외로 가실 손님은 에어부산을 이



에어부산 캐빈 승무원이 기내에서 손님들과 함께 '무료항공권 럭키드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에어부산

용해 행운의 기회를 얻으시길 추천한다"고 전했다.

/정연우 기자

오늘의 운세

9월 16일 (음 8월 18일)

http://www.saju4000.com

쥐 36년생 부모 자식 간의 대화가 중요. 48년생 쉽게 얻은 재물은 쉽게 나간다. 60년생 자신의 어려움을 모두 노출 시키지 마라. 72년생 계획도 없이 무모하게 일을 진행하다 낭패. 84년생 공부는 청천벽력(靑天霹靂)도 비켜간다.

말 42년생 소피 후배의 도움으로 일을 무사히 처리. 54년생 선택은 자유이나 책임은 져야 한다. 66년생 무리일지라도 무조건 앞으로 나가라. 78년생 아니라고 생각이 들 때 바로 잡자. 90년생 실패한 거사는 돌아보지 마라.

소 37년생 한발 양보하면 일이 빠르게 진전. 49년생 분수를 지켜야 실수가 없다. 61년생 책임진 일을 쉽게 마무리하나 성과는 늦게 나타난다. 73년생 결혼은 타협의 연속이다. 85년생 있는 듯 없는 듯 조용히 지내야 하는 날.

양 43년생 외부활동을 자제하고 먹는 것에 신경. 55년생 약간의 먹구름이 낀 것이니 걱정하지 마라. 67년생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르고 지출. 79년생 상대의 실수를 용서하면 이득. 91년생 자신을 이기지 않고는 진보가 미약하다.

호랑이 38년생 기본전환과 친구가 필요. 50년생 조금이라도 미흡하면 바로 중지. 62년생 서운한 마음이 들어도 가족에게는 숨기는 것이 좋다. 74년생 하늘이 맑고 공기까지 좋으니 마음도 편안. 86년생 정보를 잘못 알 수도 있으니 신중.

원숭이 44년생 마음만 바쁘고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다. 56년생 변화가 있어도 영향은 미미. 68년생 일의 결과가 좋아 명예를 높이는 날. 80년생 흐지부지될 수 있으니 반드시 문서로 남겨라. 92년생 고기는 씹어야 맛있고 말은 해야 맛있다.

토끼 39년생 다른 사람의 시선도 이해해야 한다. 51년생 근거 없는 칭찬은 허공의 메아리 일뿐. 63년생 아직은 기회가 있으니 실망하지 마라. 75년생 마음이 편안하고 안락한 하루. 87년생 비상한 손재주로 호평을 받고 성과도 좋다.

닭 45년생 어제의 후회는 잊는 것이 좋다. 57년생 사방으로 운이 열렸으니 미뤄둔 일을 마무리. 69년생 남의 것을 욕심내면 내 것이 2배로 나간다. 81년생 희로애락을 나타내지 마라. 93년생 새로운 이상과의 만남으로 들뜬 하루.

뱀 40년생 하찮은 걱정은 던져두고 건강관리. 52년생 좋은 것이 좋은 것을 부른다. 64년생 다른 사람의 충고를 귀담아 들어라. 76년생 행복은 주변에 있으니 이웃을 보살피라. 88년생 공과 사를 조심히 분리하여 행동해야 할 듯.

개 46년생 한밤중에 비단옷 입고 거리를 활보하는 격. 58년생 된다. 된다하면 정말로 그렇게 된다. 70년생 체면치레보다 실속을 생라. 82년생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 마라. 94년생 사람을 많이 만나게 필요하다.

돼지 41년생 작은 일에 흥분하지 마라. 53년생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 행복한 사람. 65년생 소원성취는 시기상조이니 인내를 가져라. 77년생 무리하지 말고 형편과 능력에 맞추면 된다. 89년생 삶은 계속되니 꿈을 잃지 마라.

돼지 47년생 더 많은 준비를 하고 시작. 59년생 그러은 사람의 방문으로 즐거움 오후. 71년생 조금만 결정이 좋은 기회를 놓치게 한다. 83년생 너무 멀리려고만 하지 말고 잠시 멈춰서 주변의 돌아보라. 95년생 부모님의 지지가 큰 힘.

SUDOKU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 듬뿍! 아이큐 쑥쑥!

-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 가로·세로 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7						4
2		5	3			7
	9	8	7	4	2	5
	6					2
	3					8
	8	2	4	5	6	7
			1	2		
		4			3	
2		8	3	9		4

				9	2	1		
							3	
3	2				1	9		5
	9	5			4	3		7
1			5	7				2
				9	6			
6	3	1						
			2			9	8	
		4		2	6	5		

스도쿠 정답								
1	7	6	8	5	2	9	3	4
2	6	4	5	9	7	1	8	3
8	9	5	2	1	4	3	7	6
5	2	9	6	7	8	1	4	3
6	8	7	1	9	2	4	5	3
5	2	1	8	4	6	9	7	3
9	5	7	3	1	8	6	4	2
4	1	6	8	5	9	7	2	3
7	4	8	9	2	6	1	5	3

문제 제공= **보너스**



김상희의四季

전원주택과 물의 풍수

도시와 시골 중에서 거주 하고 싶은 곳을 고르라고 한다면 아마도 꽤 많은 사람들이 시골을 선택할 것 같다. 도시는 생활이 편리하지만 바쁘고 혼잡하고 숨찬 느낌이 들어서 나이가 들면 전원 속의 삶을 꿈꾸는 사람들이 많다. 실제로 주변에서도 교외 지역으로 거처를 옮기는 사람들이 자주 늘고 있다. 그렇게 전원 속에 새롭게 지은 집을 구경하러 가는 기회가 있다. 아름답거나 아담하거나 나름의 멋을 뽐내는 집들을 보면 부러운 마음이 생기기도 한다. 그런데 집들을 구경하다 보면 풍수의 기운을 잘못 활용하고 있는 부분이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전원주택은 정원에 연못을 설치하거나 작은 풀장을 만들어 놓기도 한다. 문제는 물의 배치나 이용이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풍수로 보면 물을 담고 있는 연못의 크기가 너무 큰 것은 좋지 않다. 건물에 비례해서 적당한 크기가 좋은 것이 지나치게 크면 건물의 기운을 눌러버리는 역효과가 생긴다. 풀장이나 연못이 집에 너무 가깝게 붙어있는 것도 좋지 않은데 기거하는 사람의 기운을 떨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물은 사람의 생존에 필수 자원이고 생물의 근원이기도 하다. 그러나 물이 풍수에서 때로 좋지 않은 역할을 할 수도 있다. 건물 주변에 있는 물줄기가 너무 빠르게 흐를 때가 그런 경우이다. 지나치게 빠른 물줄기는 자산을 마르게 하는 해를 입힐 수 있다. 반면에 두 개의 하천이 합쳐지는 곳에 있는 건물은 재정적으로 확장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 물줄기와 함께 좋은 기운이 스며들어 재물을 모으게 한다. 단순히 물이 가깝다거나 땅값이 저렴하다고 덜컥 집터를 정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전원주택에서 더 이상적인 생활을 누리려면 물의 위치와 배치를 꼭 눈여겨보아야 한다.

'김상희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편집국장	이장규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4282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0386호